

### 임의성의 통증클리닉 통증클리닉 언제 가는가?

여기 허리 아픈데 오는데 맞나요?

통증클리닉(Pain Clinic),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취통증의학과의를 개원한 지 5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필자의 병원 접수창구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통증클리닉이란 이름으로 병원이 생기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어떤 진료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어깨 통증으로 필자의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은 분이 임직원의 인연이 기회가 돼 여러분에게 앞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로 치료하는 질환과 치료방법 및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상식에 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첫 글이기에 이번에는 흔히 통증클리닉이라 불리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통증클리닉은 학문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료영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공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전신 마취만 하던 마취과의사가 필요에 따라 부분마취를 하게 됐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 후 환자의 통증도 제거해 주게 됐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없애 산모에게 무통분만을 시켜주고,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마지막 통증까지 해결을 해주면서 더 나아가 통증 자체가 주 증상인 환자의 통증까지 관리하다보니 자연히 통증클리닉이란 한 분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안과나 성형외과처럼 통증클리닉도 하나의 전문과목으로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어디가 아플 때 통증클리닉을 방문할까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그동안 본원에 방문하신 환자들의 병명 또는 증상을 통계적으로 알려드리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환자들이 본원을 찾는 가장 많은 경우는 허리통증 및 하지저림감이었습니다. 원인으로서는 허리디스크, 협착증, 허리수술 후 통증증후군 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덜미와 어깨통증으로 목디스크, 거북목증후군, 오십견, 회전근개 힘줄염 및 힘줄과열, 석회성 힘줄염, 만성피로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통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퇴행성 관절염이었으며 운동하다 다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좌골신경통, 테니스 엘보(팔꿈치 통증), 족저근막염(발뒤꿈치 통증), 수근관증후군(손바닥 저림), 통풍(발가락, 발목 통증), 스포츠 손상에 의한 각종 염좌 또는 관절주위 염증 등으로 내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흔히 신경계 및 근골격계 만성통증을 일으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통증클리닉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증클리닉에서 치료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허리디스크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초기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때에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호전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보존적인 디스크 치료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지방사통이 있거나 이학적 검사에서 전형적인 디스크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하지 감각이 무뎠는 등의 결과를 보인다면 통증클리닉을 방문해 디스크에 의해서 불리는 해당 요추부 신경치료를 받아 급성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후 꾸준한 허리 인대강화주사(prolotherapy)를 받아 증상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환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될 수 있으면 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수술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사례가 많아 통증클리닉을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척추전문 병원에서도 비수술적 시술이나 주사 치료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의성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02-2646-7582

He is ... ▲임의성마취통증의학과 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 설 연휴, 평창도 가고 공연도 즐기고

###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문화공연 '풍성'...박물관·미술관 무료 개방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설 연휴가 찾아왔다. 연휴는 비록 짧지만 즐길거리는 풍부하다. 명절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소개한다.

설 연휴 동안 평창올림픽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관람객 10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평창올림픽은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특히 경기장 안에서 관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라이브사이트'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응원전은 물론이고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올림픽 기간에 맞춰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매일 4~6차례 경기를 생중계하고, K-POP을 비롯한 각종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매일 10차례 걸쳐 홀로그램을 활용한 콘서트도 함께 진행된다. 야간(오후 6~10시)에는 그날 경기의 메달 시상식을 전후해 개최되는 불꽃 피리소 및 헤드라이너 공연, 불꽃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 천년향, 아트 온 스테이지, 파이어 아트 페스타, 청산별곡 등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테마공연 천년향은 한국 전통의 미와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여기에 세계인이 모두 공감할 만한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첫 공개 이후 연일 매진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국립박물관, 미술관도 연휴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18일 동안 관할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단, 설날인 16일은 휴관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풍물, 탈춤, 사자춤 등 전통 연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설맞이 특집공연이 열린다. 지방 국립박물관(12개)과 전시관(익산)에서는 전통음식과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전통무예, 마리오네트, 탈놀이극 등 문화공연(경주·진주·청주·나주)과 떡국 나눔(전주)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과천관·덕수궁관을 무료로 개방(서울관만 16일 정기휴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과천관과 서울관을 방문하는 개미 관람객에게는 1일 선착순

50명에 한해 3관 초대권을 준다. 설 연휴 기간 중 개미 관람객이 과천관·서울관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3관 통합 초대권 2매를 받을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복주머니 만들기, 연 만들기, 고무신과 한복 장신구 만들기, 한지공예 등 전통 문화 체험과 설 놀이 16강전 등을 통해 설 연휴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통 미술, 한지 미술 등 다양한 미술과 함께 전통연희까지 즐길 수 있는 공연 '일씨구절씨구'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설 연휴 전날인 14일에 한국 근현대사를 노래로 조명하는 공연 '역사를 담아 노래하다'를 연다.

위대용 기자 wee@

**미래의 변화를 꿈꾸는 초우량기업**

한광전기공업(주)는  
고객감동의 미(美)를 만들어갑니다.

**Compact Type**  
**Energy Saving**  
**High Efficiency**  
**Advanced Safety Feature**  
**Green Consumer**

**HMC-8000**  
전동기제어용

**영구자석형 전자개폐기 내장**  
(Permanent Magnetic Contactor)

- ▶ 영구자석과 전자력을 함께 사용하며 무진동으로 인한 정밀부 브레이크 수명 3배 증가
- ▶ 저 전류 특이점으로 무점락 유지 (200A이하 용량인 신부품기)
- ▶ 소모전력 30% 이상 감소와 고압부 발열을 0%
- ▶ 수전압전압, Voltage Drop 방지 및 Voltage Drop 제어가능
- ▶ 자석이 공회전 시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도 정합을 받지 않으며 영구자석은 30년간 0.5% 감소

**한광전기공업(주)**  
한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본사: 서울시 성동구 마곡신로 144 우원테크센터 402호 Tel. 02-467-3731 Fax. 02-463-8350  
공통: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대림로 57번길 48 Tel. 031-762-7500 Fax. 031-764-0032

### 공정거래 바로세우기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모전기공사 업체가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했는데 손실이 엄청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원사업자가 신고를 취하는 조건으로 손해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건을 끝냈다. 신고인은 못마땅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 공정위 담당자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고 또 더 이상 지체되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때 손실이 난 이유는 간단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계약서에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원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에서 공사 차이가 크게 난 것을 계약체결 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알게

오를 일으키거나 기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기망하려는 수작이 보이더라도 이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3년 전의 그 사건은 다분히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이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한편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에 신고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3년 전의 그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있을까. 거래 종료 후 3년이므로 소멸 시효만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증거자료와 논리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이렇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 착오 또는 기망의 하도급계약이 되면

되었다. 이것이 하도급업자의 착오인지 상대방의 기망인지 알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대단히 큰 손실을 보고 그 업체와는 완전히 거래를 끊은 사건이었다. 한편 이러한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듯하다. 계약체결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고 이를 낙찰받는 것인데 어찌 된 일인지 계약체결 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 훨씬 낮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곤 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진행될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된다. 따라서 하도급을 받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현장설명회 자료, 견적서 제출 시에 참조하는 원도급사의 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착

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건이 공식화되기 전에 자료를 조용히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자료 확보에 애로가 있다. 불공정거래 입증은 신고인에게 있으므로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면 승산이 있다. 혹시 공사를 담당했던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때 사용했던 컴퓨터와 업무용 이메일을 꼭 프린트해서 저장해두라.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 02-562-6578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 02-562-6578